

특별취재



김제시 아동안전지도 제작설명회

김제시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학교 주변의 위험·안전환경 요인을 조사하여 지도화하는 아동안전지도 제작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아동안전지도는 초등학교 주변에 범죄로부터 위험하거나 안전한 장소를 표현한 지도로 교사·학부모, 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서 제작하고 제작 완료된 안전지도는 가정통신문과 교내 게시판 등을 통해 전교생과 공유하는 등 안전지도 활용교육도 진행된다.

금년 제작참여 학교는 만경초 등 총 7개 초등학교로 학교 당 최소 20명 이상의 학생과 인솔자가 함께 참여하여 제작할 계획이고, 시는 제작된 안전지도를 활용하여 학교주변 위험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범죄예방에 기여하고 학교 주변 범죄 위험공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범죄 대처능력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신규 이·통장 직무교육

김제시는 지난 31일 2016년도에 신규로 임명된 이장과 통장을 대상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도 및 지원사항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신입 이·통장 1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통장의 역할과 책임, 김제시 추진 성과와 비전, 단체 상해보험 가입 및 보상 절차 등에 대한 설명 등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지난해 김제시 관할구역으로 결정된 새만금방조제와 내부개발 사업장을 견학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행정 최 일선에서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이·통장님들께 감사드리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올 한해는 김제 종자생명산업특구지정으로 첨단농업을 선도하는 메카로 이뤄나가고 더불어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의 탄력으로 새만금의 중심도시로 나가는데 함께 하자고 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 자율방재단 창단 7주년 기념

정읍시는 지난달 31일 청소년수련관 녹두홀에서 정읍시 지역자율방재단 창단 7주년 기념식과 방재교육을 가졌다.

행사에는 지역자율방재단과 정읍시 재해대책 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 방성원 자율방재단장은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연재난 예방활동과 복구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원광대학교 오숙경 교수는 '건축재난과 대처요령'이라는 주제로 열린 강의를 펼쳐 참석자의 폭넓은 방재의식 함양 고양에 도움을 줬다.

김생기 시장은 축사를 통해 각종 재난 예방활동에 대한 자율방재단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적극적인 봉사과 희생정신으로 여름철 재해와 자연재난에 잘 대처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읍시 지역자율방재단은 재해취약지역 순찰 및 응급복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민·관·군 의 사전공조 체계와 비상연락망 유지로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철도특화단지 조성 점검

초우량 기업 다원시스의 하반기 전동차 공장 착공 위한 회의 개최

전력전자분야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국내 초우량 기업인 (주)다원시스(대표 박선순 이하 다원시스)의 철도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시는 "다원시스 전동차 생산 공장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올 하반기에 전동차 생산 공장 건립 착공을 위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3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다원시스와 전라북도, 정읍시, 정읍시의회, 주변마을 주민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북도는 "전동차 생산 공장이 가동하기 전에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정읍시에서 토지매입을 대행하고, 민원발생 예방에 힘써 줄 것"을 요청하고 "철도산업특화단지 조의 조속한 지정을 위해 올 상반기 내 정읍시 농공단지 분양율을 95%까지 높일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정

읍시가 상호협업해 나가자"고 밝혔다.

김생기 시장은 이날 지난 1월 전라북도에서 있었던 다원시스 조기착차를 위한 관련기관 협업방안 토론회에서 대안으로 제시했던 ▲진입도로 확·포장 ▲농공단지 및 개별임지 공장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전동차생산 공장에 대한 부지매각 ▲진입도로 확·포장 시 상·하수도 관로공사 병행 매설 등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철도연결선로 등 철도산업특화단지 의 기반시설 구축과 관련, 투자 선도지구 공모사업 응모 등 시비 부담을 줄이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읍시와 전북도 다원시스는 지난해 10월 입안된 노령역 인근에 6만6천㎡(약 2만평)의 전동차 완성품 생산공장 부지를 포함한 23만㎡(약 7만

평)의 규모의 '철도클러스터 조성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곳에는 관계 협력기업 30~40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으로, 현재 행정절차 이행 및 부지매입 등이 진행되고 있다.

다원시스는 2018년까지 300억원을 투자해 연간 300량 이상의 전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완성차 제작공장을 신축할 예정이다.

박선순 대표는 "향후 10년간 국내 전동차 수요시장은 노후 전동차 5천량, 6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러한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노동 생산성과 주요 부품 자체 제작으로 국내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 전진기지를 마련하겠다"며 "정읍에 철도산업클러스터가 구축되면 회사의 제2의 도약은 물론 정읍 발전에도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서울행 고속버스는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 25분까지 운행되며, 서울 발(發) 태인 도착 버스로 역시 하루 6회로 운행된다.

정읍출발 태인면 경유 서울행 고속버스 운행

지난 31일부터 태인면에서도 서울행 고속버스가 운행됐다.

당일 태인면 버스정류장에서 열린 개통식에는 김생기시장과 조복희 중앙고속 정읍지소장, 지역 내 단체장 주민 등이 참석해 개통을 축하했다.

정읍을 출발해 태인면을 경유하는 서울행 고속버스는 하루 6회이다.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 25분까지 운행되며, 서울 발(發) 태인 도착 버스

도 역시 하루 6회로 운행된다. 앞으로 버스가 운영되면 인근 10개 지역태인, 신대인, 정유, 감곡, 응동, 칠보, 신내, 신의, 김제, 원평) 약 5만여명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전망이다.

태인면 관계자는 "서울행 버스 개통은 태인 버스정류소 김형기 대표를 비롯해 주민 1천여 주민들이 탄원서를 첨부해 2년간 설득을 벌인 성과

라며 "올해 태인면 소재지인 정비 사업과 함께 태인의 화려했던 옛 문화를 회복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태인버스정류소 대표 김형기씨는 "면 단위로는 최초로 태인면에서 고속버스가 운행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지역 어르신 100여분을 초청해 점심을 대접, 훈훈함을 더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국가예산 확보 총력

노점홍 부군수 중앙부처 방문

노점홍 부안군 부군수(사퇴)가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을 해결하려고 해수부·농식품부·국토부 등 중앙부처에 발품을 팔며 국가예산 확보에 발 벗고 나섰다.

노 부군수는 2017년도 국가예산을 확보하려고 중앙부처를 잇따라 방문.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 건의하는 등 '부안에 오면 오복을 가득 받을 수 있다'는 '부래만복(扶來滿福)' 실현에 온 정성을 쏟고 있다.

지난달 31일 노 부군수는 세종특별시를 찾아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4개 부처를 잇따라 방문하고 주꾸미 자원회복을 위한 산란서식장 조성 등 10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노 부군수는 해양수산부를 찾아 주꾸미 자원회복을 위한 산란서식장 조성 및 양식어장 환경개선, 무인도서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출몰로 습지보호지역 관광기반시설 정비, 노루



복 해안 산책로 조성사업, 제3회 새만금 국제요트 크루징 대회 등 6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로 이동해 가능성 양잠산업 육성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으며 국토교통부를 찾아 운흥천·신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반영 협조를 당부하고 이어 환경부를 방문해 수생자연미당 조성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반영을 협의했다.

노점홍 부군수는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자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고 국가예산 확보가 지역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만큼 전 공직자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부안에 오면 오복을 가득 받을 수 있는 '부래만복(扶來滿福)'의 고장 부안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 판도라봉사단 모범

10년동안 이동목욕·김장담그기 등 활동

2006년 김제시 공무원 자원봉사 활성화 포럼을 계기로 구성된 10명의 판도라봉사단(회장강영석)이 10년 넘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판도라봉사단은 2006년부터 10년 동안 김제제일사회복지관에서 이동목욕, 사랑의 틀게이트모금, 김장담그기, 명절물품나눔기, 캠페인 등 자체 회비를 활용한 월회 정기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요보호대상자들의 도매장 판·방출·보안망 설치 등 간단한 집수리를 중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0년과 2013년 전북사회복지협

의회 사회공헌 나눔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비 선정으로 사업비 100만원을 받게 되어 회원과 대상자에게 더욱 활기차고 보람찬 봉사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 간호전문인력 9명을 추가회원으로 영입하여 간호를 전문화한 대상자들의 피부에 직접 닿는 봉사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들 회원들은 도서관 보건소, 주민센터, 분청등 근무처 등에서 봉사도 많은 인연을 맺었지만, 안부전환 등으로 소중하게 이어가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마실길 걷기' 5월 개최

산·물·바다와 노을 어우러진 변산반도의 아름다운 절경과 서해바다 파도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걷기 행사가 오는 5월 부안에서 열린다.

이를 위해 부안군은 5월 6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제4회 부안마실길제 부대행사로 '부안마실길 오복 걷기 행사'를 오는 5월 7·8일 2일 간 변산면 모항해수욕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부안마실길 코스 중 가

장 자연경관이 뛰어난 모항해수욕장서 곰소갯길까지 약 12km 구간을 탐방하는 행사로 전국의 도보 마니아와 지자체, 유관기관, 기업체, 전북 산악 연맹, KB국민은행 호남북지역본부 등 많은 탐방객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는 식전행사를 간소화하고 탐방구간 중간에 번개관서트와 먹거리쉼터, 특산물판매장 및 홍보관 등이 운영되고 원주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된다.

/부안=이옥수 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and Gansan Beer.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beer bottles, and gift set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병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It also lists various gift set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Gansan Wine.